

보도시점 2024.12.26.(목) 12:00 배포 2024.12.26.(목) 08:30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 발간

통계개발원(원장 김 진)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고령자 관련 이슈분석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 사고」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등*을 수록하였다.

* 이슈분석 외에 통계프리즘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기간 국내 서비스업 구조 변화」, SRI 리서치노트에 「비확률표본을 위한 통계적 추론」 수록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울산과학기술원 정지범 교수)에서는 고령자 안전사고의 현황과 추이를 다양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 고령층 보행자 교통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통계청 전용수 사무관, 강창원 주무관)에서는 고령인구의 주된 소득인 연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신규개발한 연금통계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연금 수급자수, 수급률, 수급금액 등 전반적인 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KOSTAT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붙임: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 이슈분석 소개(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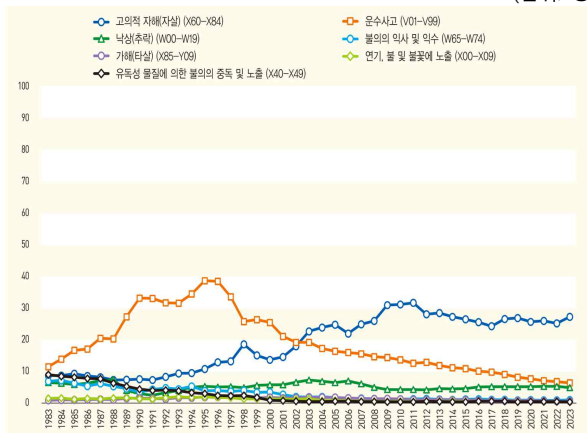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책임자	실 장	이민경 (042-366-7101)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116)

-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인사*는 27,812명으로 전체 사망 중 7.9% 수준
- 외인 사망률**은 자살(27.3명), 운수사고(6.4명), 낙상사고(추락 포함, 4.9명) 순
- 고령층은 사고 발생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외인 사망률이 전체 연령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며, 특히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연령 대비 3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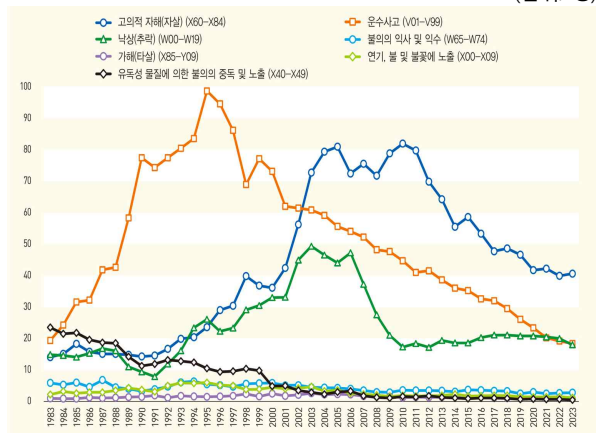
* 외인사(death from external causes): 교통사고 등 사고나 자살로 인한 사망

** 사망률: 10만명 당 사망자수

< 전체 인구 집단의 외인 사망률 (1983~2023년)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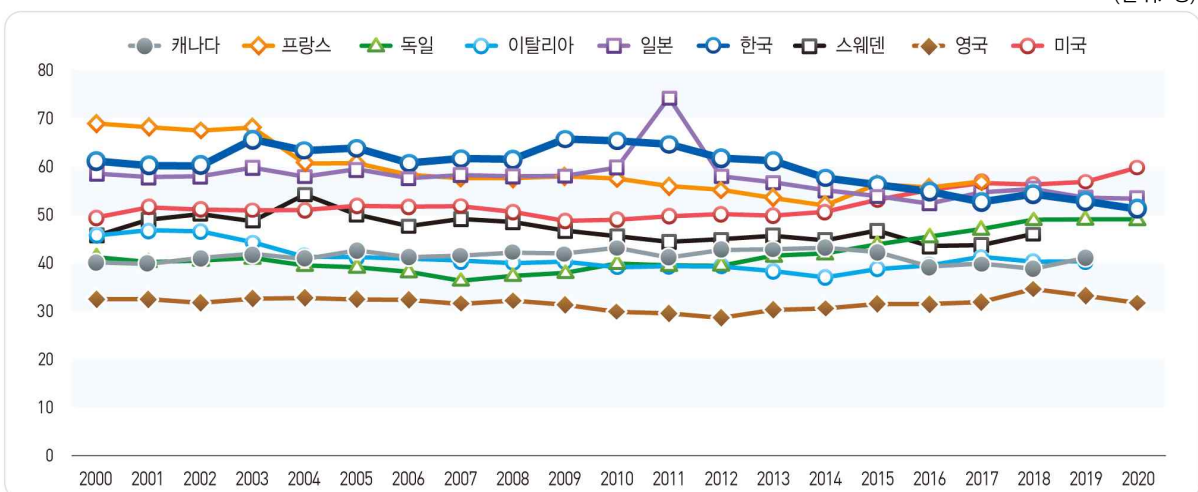
< 고령층(65세 이상)의 외인 사망률 (1983~2023년) >
(단위: 명)



- 외인 사망률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2000년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

< OECD 주요국가의 전체 연령에 대한 외인 사망률 추이(2000~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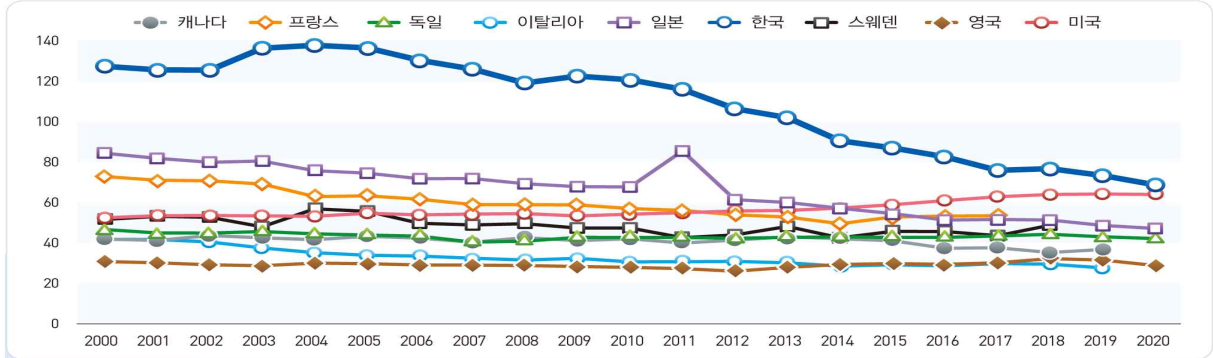
(단위: 명)



- 고령층(55~74세)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외인 사망률을 유지하다가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OECD 주요국가의 55~74세에 대한 외인 사망률 추이(2000~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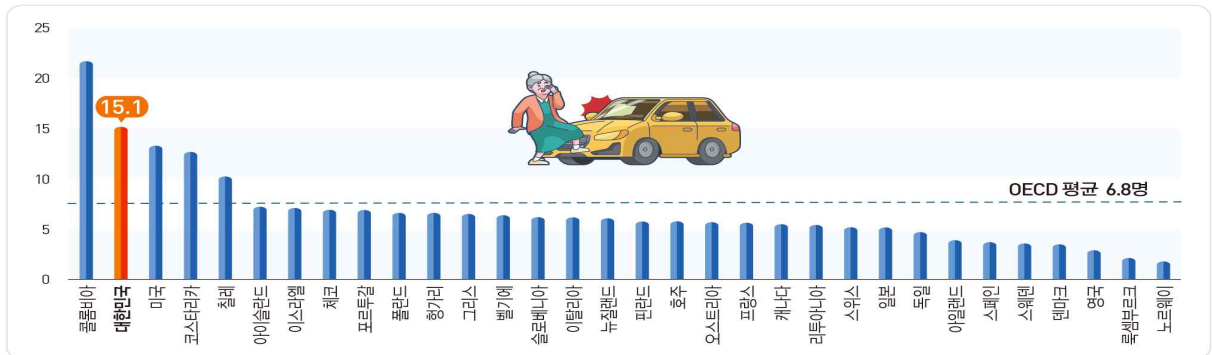
(단위: 명)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OECD 평균(6.8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15.1명)

< 고령층(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률 국제 비교(2021년) >

(단위: 명)



- 2021년 기준 고령자 낙상사고 장소는 주택이 2,519건으로, 대부분의 낙상사고 장소는 주택(72.5%)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령자의 낙상 사고 상당수는 가정 내 타일 바닥재에서의 미끄럼 사고 형태임

<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장소별 접수현황(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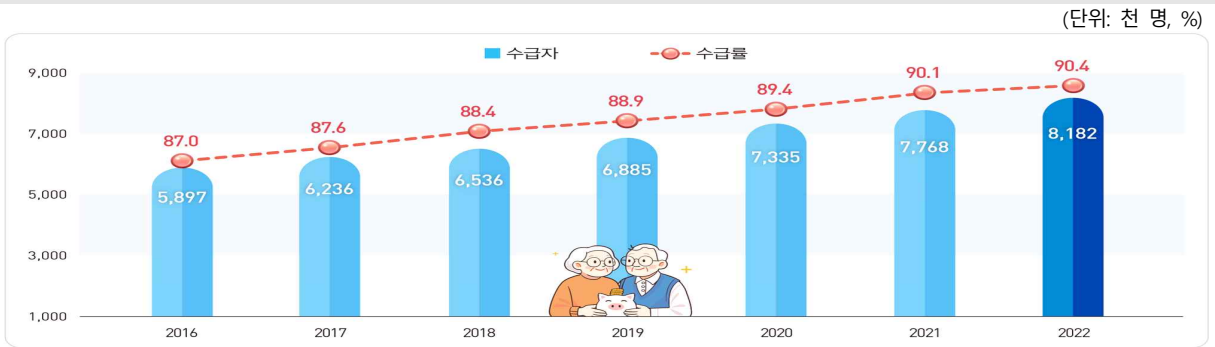
(단위: 명)



전용수, 통계청 행정통계과 사무관
강창원, 통계청 행정통계과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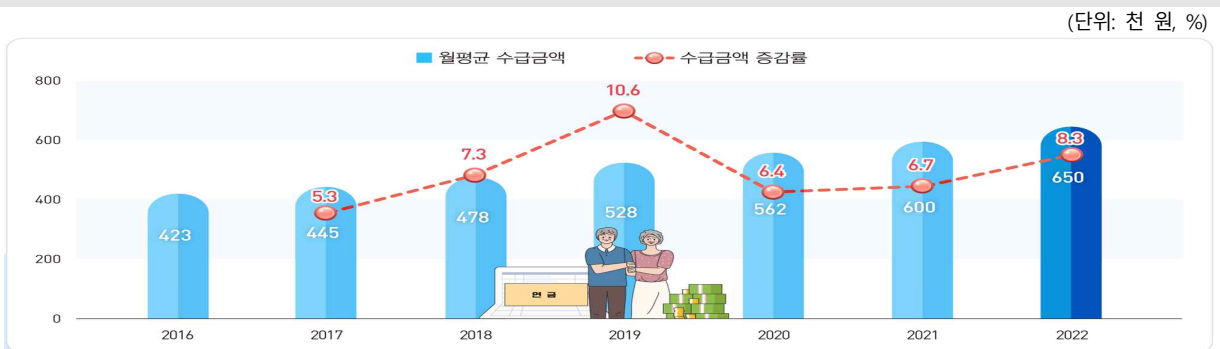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중 수급자가 차지하는 연금 수급률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2022년 기준 65세 인구의 약 90%인 약 818만명이 연금을 1개 이상 수급 중

<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수 및 수급률(2016~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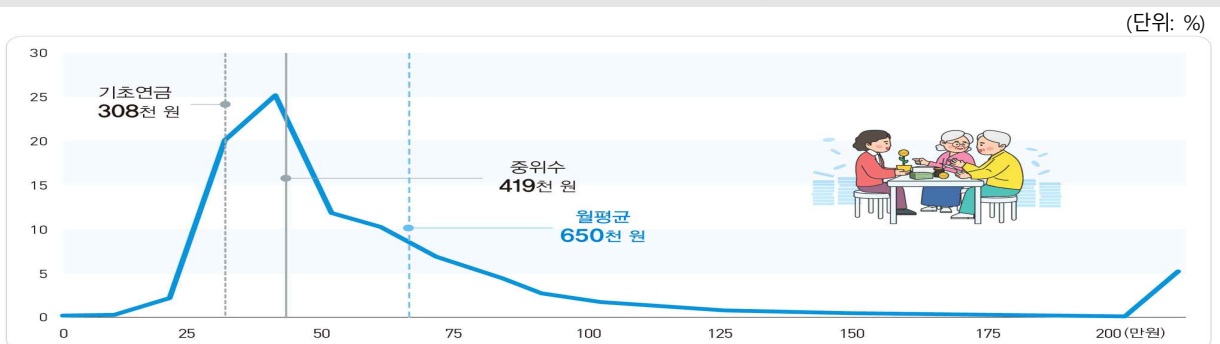
-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5~10%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022년 기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 수준

<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2016~2022년) >



- 2022년 기준 수급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금액의 중위수는 약 42만원이며, 월평균 수급금액 65만원의 약 2/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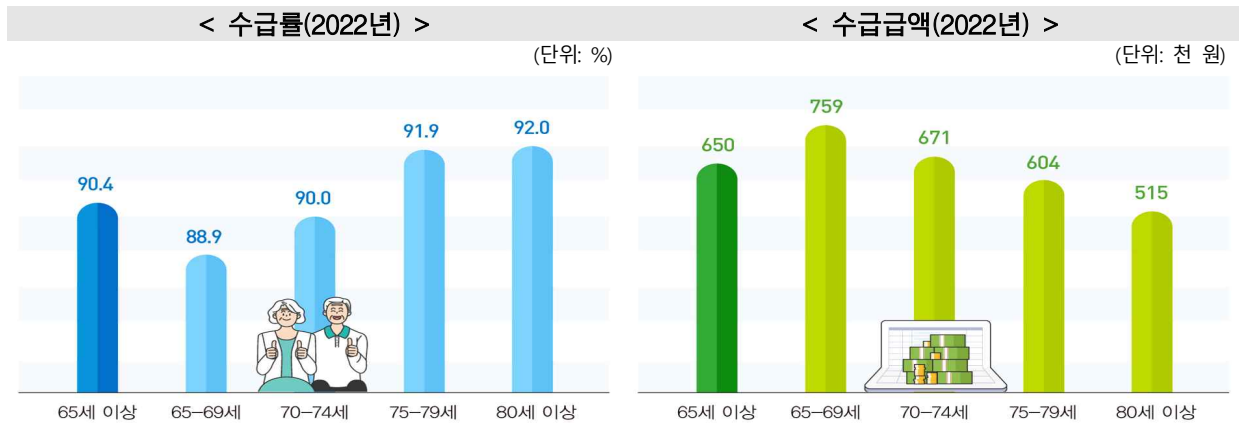
< 연금 수급금액 분포(2022년) >



- 고령자의 6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인구는 48.1% 수준
 - 고령인구 중에서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는 35.6%이며, 월평균 수급액은 약 29만원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는데 반해, 수급금액은 적어짐
 - 2022년 기준 고령자 중 65~69세의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지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약 76만원으로 가장 많음



- 고령자 1인 가구의 수급률은 94.1%, 고령자 부부가구는 97.1%로서 큰 차이가 없음
 - 고령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58만원으로, 고령자 부부가구 약 116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